

“자연친화적 광주천 만들기 발로 뛰겠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제21회 한국 강의 날 대회서 환경부장관상 수상 광주천 모니터링 등 생태계 건강 위해 적극 나서

“물은 우리네 삶의 원천입니다.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죠.”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이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제21회 한국 강의 날 대회' 강 살리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거버넌스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콘테스트에서는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하천 수질 및 생태계 복원 등 하천 보전에 기여 활동, 활동 과정에 추진 주제나 참여자의 변화, 민관 파트너십 또는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인터뷰를 맡은 홍기혁(62)회장은 “모래톱은 자연형 하천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모래톱은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생겨나는 볼록한 부분으로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을 말한다. 이들은 곧 자연형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의 퇴적물로 수질 정화에 큰 힘을 발휘하며 이들의 존재는 곧 건강한 하

천을 의미한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이하 모래톱)의 결성은 2004년 당시 광주시에서 진행한 '맑은 물 찾기 운동'이 계기가 됐다. 당시 함께했던 이들이 '광주천 지킴이' 단체를 조성했고 이후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인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으로 발전해 왔다.

모래톱은 약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최고령인 80대는 무려 7명에 달할 만큼 고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다. 이들의 직업 역시 의사부터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하다.

이들의 활동은 광주천 모니터링이 가장 대표적이다. 매달 광주천에 나가 식수연계와 거주 동·식물을 살핀다. 또 훼손되거나 변화된 자연에 대해서는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회복에 힘쓴다. 수해복구 시 해결 방안 등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은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제21회 한국 강의 날 대회' 강 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거버넌스 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등 공약의 흐름을 지적하기 위해서 1인 시위 등도 진행했다. 토론회와 포럼 주최는 물론 광주천에서 광주시민 등과 함께하는 문화제도 열어 환경의 소중함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천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 강조하는 홍 회장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을 잘 보전해야 모든 것이

응당하다”고 말하며 물의 소중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모래톱의 목표는 광주천 좌안과 우안 중 한 곳을 온전히 자연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홍 회장은 “현재 광주천은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이 아닌 사람 친화적으로 이뤄져 있다. 치평교 부근에 위치한 400m 가량의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을 점차 늘려 한 방향을 모두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박현수 광주시교육청 주무관 최연소 건축시공기술사 합격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박현수 주무관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 최연소로 최종 합격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은 국가기술사 자격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이 응시인원의 40% 내외로 합격이 매우 어려운 시험이다.

특히 건축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건축공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시공분야 최고 자격증이다.

한편, 박현수 주무관은 지난 2015년 공직에 입문해 근무 중이다. 박 주무관은 시설공사 및 시설 기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이번 시험을 준비했다.

일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꾸준히 시험을 준비해 최연소로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박현수 주무관은 “업무와 병행하느라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어 너무 기쁘다”며 “기술사 합격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지스트, 2022년 하반기 학위수여식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지난 19일 지스트 오픈관 다목적홀에서 주요 보직자 및 우수 학위수여자, 졸업생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54명을 비롯해 석사 62명, 학사 48명 등 총 164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박사학위 수여자 54명은 재학 기간 동안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학술지에 1인당 평균 약 6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사졸업자 중 김해솔 박사(지도교수 이상한)는 재학 기간 중 총 13편의 SCI급 논문을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고, 중 화학 분야 최고의 학술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2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연구 활동과 3건의 특허 실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식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미래인재상'은 지스트 학사과정 재학 중 ㈜라우드스톤을 창업해 배달 앱서비스 '배달직'을 운영하며 국내 주요 10여개 대학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도전적인 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 화학과 김민준(지도교수 안진희)씨가 수상했다.

김기선 총장은 학위수여식에서 “지난 수년간 지스트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정한 목표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 온 164명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며 “지스트에서 얻은 역량과 자부심으로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따뜻한 과학기술인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만 기자



빛누리초 '에너지 스타트업 페스티벌' 성료

빛누리초등학교(교장 문희숙)는 최근 4~6학년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빛누리 에너지 스타트업 동아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빛누리 에너지 스타트업 동아리 여름 방학 특별프로그램 교육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에너지 과학, 드론 항공, 로봇 등 다양한 활동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 자리로, 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에 대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또 교직원, 학부모 자원 봉사자, 전문 강사 등도 참여해 학생들의 에너지 과학 및 미래 산업 체험활동을 도왔다.

학생들은 창작 비행기 날리기, 로봇 축구, 장애물 통과 드론 실습 등 총 4개 분야 8개 부스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과학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웠다. /최병진 기자



현대중1%나눔재단, 친환경 여성위생용품 후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21일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목포·무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 현대상호중공업 한정동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기부했다. 재단은 여성위생용품을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추천한 목포와 무안 지역

여성보호시설 7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들어 전남 서남권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지원과 3천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보양식 꾸러미 전달 등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대상호중공업 관계자는 “여성위생용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남=나동호 기자



남도포럼, 김창진 전통문화연구회 이사 초청 강연

(제21세기남도포럼(상임대표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은 최근 광주 서구 라페스타 연회장에서 김창진(사)전통문화연구회 이사를 초청, 제24회 정례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포럼에서 김창진 이사는 ‘수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문학박사이자 한자한문교육학회 부회장, 국어국문학회 이사로 활동한 김 이사는 그동안 다양한 글쓰기 교육과 강의 경력을 토대로 수필에

대한 수필의 본질과 한국 수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 이사는 “신춘문예에서 수필을 공모 대상에서 빼버린 한국인들이 수필로 알고 있는 문예 수필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대신에 신문들은 평문을 공모 대상에 넣고 있는데 이는 평문이 지성을 표현한 문학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수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영광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휴가철 감시·단속활동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최근 영광군 백수읍,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해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관내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 가능업소를 감시·계도하고자 매일 1회 이상 청소년 보호·유해환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8월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영광군 노인가정과,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실무자 등이 참여해 활

동 인원 15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백수읍·백수해안도로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련 업소 30곳을 방문해 청소년보호사항에 대한 감시·계도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중호 감시단원은 “8월 여름 휴가철 관광지 및 피서지를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유해 하절기 휴가를 무탈하게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아동 보호 후원금 전달

목포 몬테소리유치원은 최근 지역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임광목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현미 팀장, 최희희 몬테소리유치원장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몬테소리유치원이 가정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학대 피해 아동·가정의 심리치료비,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광목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 내 학대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관심과 나눔 동참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학대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위해 소중

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희희 몬테소리유치원장은 “전달된 후원금이 학대피해아동·가정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며 “학대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1988년 8월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에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호남 국민통합 생명나눔 헌혈증·기부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2022 영·호남이 함께하는 국민통합 생명나눔 헌혈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덕문스님 정광고등학교 이사장, 함병권 교장 백익순 진아건설(주) 대표이사, 황태주 한국혈우재단 상임이사,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광고가 주관한 이번 전달식은 정광고와 대구 능인고 학생들이 헌혈에 함께 참여해 모은 헌혈증 300장(정광고 200장, 대구능인고 100장)과 SK플라즈마 임직원들이 모은 90장, 지리산대화업사 스님 및 신도들이 모은 80장, 정은호마사들의



개인 헌혈증서 45장이 등 총 515장의 헌혈증서를 한국혈우재단에 전달했다.

또 진아건설(주)에서는 양교 학생들이 모은 헌혈증서 1장당 10만원씩 총 3천만원을 한국혈우재단에 후원했다. /김대인 기자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 담양소방서 격려 방문

담양소방서는 21일 “최근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이 담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 본부장은 곡성군 옥과면 소재 전통사찰 성문사와 중점 관리 대상인 한국석공공사 곡성지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옥과119안전센터를 찾아 소속 직원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 청취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담양군민이



신뢰하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